

바다와 돌이 함께하는

## 예술 · 문화 관광도시 **웅천읍**

조봉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웅천읍의 현황

웅천은 마한 때부터 서서히 부락형성이 있었던 내포(內浦)의 들이다. 백제 때는 寺浦縣(사포현)에 속해서 농경지에 정착하는 백제유민들로 크게 마을이 이루어 졌다.

신라 때는 소포현에 속해서 西林郡(서림군)의 領縣(영현)에 속했으며 어민들의 마을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고려 때는 현종 9年(1018)에 架林縣(가림현)에 속했다가 한때 왜구의 침입으로 차츰 황폐화되어 갔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초토화되었던 마을이 34대 恭讓王(공양왕)때부터 藍浦(남포)에 鎭(진), 縣(현)이 생기면서부터 군사를 주둔시켜 왜구를 철저히 몰아내고, 흩어졌던 주민들을 소집함으로 다시 재건한 지역이었다. 조선 태조 6年(1397)에 兵馬使(병마사)를 두어 縣事(현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세조 12年(1446)에 남포현에 속하여 이때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道琛禪師(도침선사)의 말에 따르면 憂國(우국) 人物(인물)이 많이 배출되며 또한 道學(도학)이 문힐 곳이라 하는데, 熊川(곰내)의 주위에 번지는 산과 들이 선비의 내음을 훈훈하게 하는 內浦(내포)의 외곽 지역이었다. 세조 후에 충청수사영의 검사영이 황교리 「구진」에 있어서 수군의 군선이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고종 32年(1895)에 남포군에 속해서 熊川(웅천)의 이름을 따서 熊川面(웅천면)이라 하여 관동외에 18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古邑面(고읍면)의 외성 외 8개 동리과, 新安面(신안면)의 杜鳴里(두명리), 습의면(習衣面)의 碧洞(벽동)과 深田面(심전면)의 東幕里(동막리)를 병합하여 웅천면이라 하고 冠堂(관당), 獨山(독산), 小篁(소황), 篁橋

(황교), 竹淸(죽청), 九龍(구룡), 廬川(노천), 杜龍(두룡), 大川(대천), 大昌(대창), 城洞(성동), 水芙(수부), 坪里(평리)의 13 개리로 개편하여 관할하면서 보령군에 속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가 된 후 1995년 3월 2일 보령시 조례 제138호로 웅천면에서 웅천읍으로 승격되었다.



보령시와 웅천읍의 위치

웅천읍의 면적은 62.1km<sup>2</sup>로 보령시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가 18.5km<sup>2</sup>, 대지가 1.5km<sup>2</sup>, 임야가 34.9km<sup>2</sup>, 기타 7.2km<sup>2</sup>이다. 가구수는 3,321가구로 이 중 농가는 1,318가구로 37.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8,27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6명이 더 많다. 웅천읍을 통과하는 도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5.4km), 국도 21호선(7.5km), 지방도 606호선, 607호선이 25.3km, 군도가 6호선, 8호선이 6.4km로 총 44.6km에 이른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낭만적인 정취와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며, 한 달에 4~5차례씩 일어나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전국에 알려져 유명해진 곳이다. 백사장에서 1.5km 떨어진 석대도까지 바닷물이 갈라져 나타난 바닷속 길을 걸으며, 해삼,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는 무창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이제는 여름해수욕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풍부한 해산물의 진미와 바다낚시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웅천에서 무창포에 이르는 해변도로 주변이 울창한 해송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움을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이다.



바닷길 체험

무창포 앞바다는 대천 앞 바다와 함께 여름철 최대의 보구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낚시

## 충남의 도시 11 - 보령시 용천읍

는 포구의 방파제 가장자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나, 대개는 배낚시를 한다. 뱃길로 15분 거리의 석대도, 30분 거리의 황죽도, 직언도, 1시간 30분 거리의 용섬 등이 중요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 중 석대도는 보구치가 유명하다. 우럭과 놀래미도 많으며, 워낙 고기가 잘 잡혀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는 9월-10월에 개최되는 축제로 가족들과 함께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맛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지역 먹거리 축제



### 전어의 특징

제철 먹을 거리는 잘 자은 보약 한첩에 버금간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은 여름철 무더위에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찾는 계절이다. 특히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이 제철이다.  
**'볼 도다리, 가을 전어'**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에 먹는 전어의 맛이 일품이란 뜻이다. 봄에 산란한 전어는 여름을 관통하면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 가을에 절정을 이룬다. 이 때문에 씹을때 고소하고 감칠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경상도,함경도에서 전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맛이 좋아 사먹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鰻魚)라고 했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가을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 이라고 말했을 만큼 예부터 인기 메뉴였다. 또한 '집나간 머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 라고 했듯 냄새 또한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 대하의 특징

'본초강목'에 대하는 신장을 좋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양기를 왕성하게 돕원주는 1등급 정력제라 치켜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종각은 먹지 말라'** 는 말까지 생겼다. 대하는 큰새우라는 뜻이지 특징 종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쿠칭호일을 깔고 그위에 굵은 소금을 얹는다. 다시 대하를 올린다음 뚜껑로 덮고 가열하면 빨갛게 익어가는 대하를 볼수 있다. 대하탕도 별미다. 담백하면서도 일찌한 국물맛은 꽃게탕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다. 대하·전어 축제를 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고향같은 축제분위기로 치르기 위해 축제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와 갯벌에서 조개와 대하를 잡는 체험행사를 펼친다. 그리고 대하·전어 축제가 무창포의 특산물인 대하와 전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인 만큼 저렴한 가격, 정량제공, 정찰제, 친절환 서비스, 청결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이 불편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있다.

## 2. 웅천읍의 비전

### 바닷길이 열리는 경이로운 땅!

무창포해수욕장은 낭만적인 정취와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며, 한 달에 4~5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바닷속 길을 걸으며 해삼,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는 무창포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 아늑하고 낭만이 가득한 무창포해수욕장!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된 무창포해수욕장은 바닷물의 염도가 높고 철분함량이 많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어 예로부터 관절계통 질환자의 모래찜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무창포 낙조는 보령의 볼거리 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 전국 으뜸 석공예!

남포오석으로 유명한 전국제일의 석공예단지로 60여개의 공장에서 비석, 상석, 건축자재, 돌장식품 등 각종 석제품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 3. 웅천읍의 발전방향

#### 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한 집중적인 개발 추진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해 웅천읍을 특화하고 민·관 및 사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도모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과 함께 주변 어촌을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해수욕과 더불어 독살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관광지로 육성

#### 웅천의 석공예를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체험도시로 육성

전국의 석공예 전문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석공예공원(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석공예단지의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예술의 거리를 조성

#### 웅천천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의 체육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천변도로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웅천천을 활용한 생태학습공간 조성 및 시민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

### 4. 웅천읍의 주요 개발사업

####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령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웅천읍을 비롯하여 남포, 주산, 미산, 성주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웅천읍에는 약 2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응모계획에 따라 보령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응천읍 성동2리에 참샘복원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평가에 응모하게 된다.

## 응천읍 소도읍육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역은 정부에서 10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안사업으로 석재산업활성화(석재공업지역 정비, 석재공원 조성), 관광어장조성사업(해상가두리낚시터조성), 관광도로조성(마을입구 소공원조성, 가로수 정비),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석재경관도로, 걷고싶은특화거리 조성), 교육환경정비사업(공부방설치 및 개보수, 학교담장정비사업), 교육지원사업(장학금지원, 교육도우미, 교육컨텐츠개발), 아름다운어촌만들기(어촌정비사업, 독살체험프로그램개발), 관광열차운행사업(차량구입 및 개조, 열차공원조성, 이벤트개발), 석재예술축제(축제행사프로그램개발) 등을 계획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응모하게 된다.

## 무창포해수욕장 체험관광어장 조성

바다길이 열리는 시즌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학습이 연계될 경우 보령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체험관광어장의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와 교육이 결합된 차별화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석대도 인근 어장에 독살 및 낚시터 등 체험장을 조성한다.

### 무창포 석대도지구 관광지 조성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를 연계한 관광지 확대 및 생태관광 루트 개발을 위해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91,583㎡에 민간자본 1,362억 원을 유치하여 관광지로 조성한다.

### 노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설명소방방재청에서 노천 재해위험지구를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하였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88억 원을 2011년까지 투입하여 설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



현장설명

## 5. 맺음말

웅천읍은 무창포해수욕장과 웅천석재공예 및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간의 연계 및 지역주민과 시청 및 민간이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창포 해수욕장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석재 및 주변의 자연환경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웅천읍 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석재공예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예술경연장 및 전시장 그리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과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교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웅천읍의 천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시 옛 명성을 찾는 웅천읍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